

이름 \_\_\_\_\_ 이진경 \_\_\_\_\_

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일본 오사카가쿠인(Osaka Gakuin)대학
파견기간	2011.09.02~2012.05.30
귀국여부	귀국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p>JSL일본어수업 : 오사카가쿠인에서는 오전9시부터 11시20분까지 일본어 수업을 합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시간에 레벨 테스트를 실시해 1~5까지 레벨을 나누고 그 레벨에 맞춰 수업을 합니다. 레벨을 나뉘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지만, 일본어의 특성상 아시아(한국, 중국, 대만)학생은 높은 반에 배정되고 서양(미국, 독일 등)의 학생은 낮은 반에 배정되어서 나라별로 고루 모여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p> <p>국제마케팅론 : 오사카 가쿠인의 일반 학부 수업을 2가지 선택해서 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국제마케팅론입니다. 이 수업을 한국인 유학생 3명 이서 들었는데, 유학생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교수님께서 매 수업시간마다 잘 이해하고 있는지 따라오고 있는지 신경 써 주셔서 편히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수업 내용은 마치 초등학생수준의 내용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쉬웠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p> <p>국제금융론 : 국제금융론 수업 역시 일반 학부 수업이라서 모두 일본인 학생들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 3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금융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다가 일본어로 전부 수업을 해서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p>
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	<p>오전에는 똑같이 레벨 별 일본어 수업을 실시 했습니다.</p> <p>일본과 동아시아관계 : 이 수업은 유학생 선택수업 중에 한가지였습니다. 즉 유학생들끼리의 수업이었습니다. 한국인 교수님이 일본어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p> <p>영화 청해 : 이 수업 역시 유학생 선택수업이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한편을 보고 듣고 받아 적으며 그 안에 나오는 배경이나 옷차림 등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p>집세 매달 42,000엔</p> <p>보험료 약 9,000엔</p>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외부 아파트( V )
숙소비용	매달 4만2천엔(약60만원)
숙소평가	학교에서 정해준 외부 아파트에 살게 되는데 임의대로 지정되기 때문에 각 학생마다 아파트가 거의 다릅니다. 방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구조 등이 약간씩 다른데 제가 배정된 아파트는 그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구비 되어있는 세탁기는 수동세탁기에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처음 한 달간 엄청난 애를 먹었고, 주방의 콘로(?)는 물을 아무리 끓여도 끓여지지 않아서 혼한 라면을 끓여 먹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의 아파트에 가보면 제가 배정된 아파트보다 훨씬 좋고 세탁기나 주방 놓여진 가구 등이 훨씬 좋아서 왜 같은 돈을 내고 이렇게 다른 사양의 집에 살아야 하는지 불만이 많았습니다. 교환학생을 마치고 온 지금도 매달 비싼 돈을 다른 학생과 똑같이 지불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양의 집에 살아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V ) 직접 요리 ( V )
식사비용	매달 약 3만엔~4만엔 (잘 기억이 안 남)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한끼 식사에 500~800엔 정도 합니다. 학생 식당의 경우는 300~500엔 정도에 식사 가능하지만 점심 시간에만 이용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평가	일본의 일반적인 식사의 경우 튀김음식이 많고 느끼하고 짠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학교에서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재해보험을 가입하게 하였고 비용은 10개월 분이 약 9천엔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보험은 매 달 1800엔 정도씩 지불하였습니다.
한달 생활비(대략)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숙소 비용 매달 집세 외에도 전기세, 가스비를 지불하였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돈이 더 많이 들었지만 평균적으로 매달 5000엔 정도의 공과금을 냈고,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교통비만으로도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한 달에 1만엔 이상)후에는 정기권을 학생요금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매 달 3000엔 정도 들었습니다.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 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저는 3학년 2학기까지 마친 상태로 교환학생에 파견 되었습니다. 졸업 여건에 맞는 수업을 듣는 게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오사카 가쿠인 대학에서는 유학생은 무조건 오전 일본어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과 일반 학부수업을 많이 들을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또한 유학생 수업은 오사카 가쿠인 대학의 일반 학사 일정과는 달리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것 또한 당황스러운 점이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일본의 학기는 4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나고 8월초부터 9월 말까지 방학이고, 10월에 학기를 시작해 1월말까지 진행되는 반면 유학생 일본어 수업은 9월초에 시작해 12월 말쯤에 끝나서 겨울방학은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한달 간 방학이 있고, 1월 말에 다시 수업을 시작해서 5월 중순에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짜여있는 학사 일정 때문에 학부수업을 들으면 방학은 없어지고 일본어 수업을 듣는 기간 중에는 오사카 가쿠인 대학의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 유학생 뿐이기 때문에 학생식당도 문을 열지 않고 연다고 하더라도 한군데 정도를 일정 시간 동안만 열었고, 유학생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학사 일정을 짜 놓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편의 시설 이용에도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고(식당이나 편의점 혹은 도서관이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점)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것인데 일본 일반 학생들은 방학 기간이어서 일본학생들과는 만날 기회가 없게 되었으며 유학생들끼리만 교류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했듯이 저는 학점, 단위가 필요했는데 아무 상관없는 일본어 수업만 10학점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국제문화학과의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제약되었고, 이런 식으로 짜여 있다면 왜 교환학생으로 굳이 와야 하는지 일반 어학연수로 어학원에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일본여행도 여러 번 다녀올 만큼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가게 되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교환학생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오사카에 도착해서는 초기에 아파트에 대한 당황스러움이나 유학생 학사일정에 대한 것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오사카 가쿠인 대학에서는 ISST라고 해서 유학생 서포트 팀이 있어서 처음 공항 도착했을 때 픽업부터 오리엔테이션, 학교 축제 등에서 도와주는 일본 학생들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ISST에 소속된 학생 이외에는 일본학생들과 교류는 거의 없었다는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ISST학생들이 있어서 좀 더 알찬 일본 교환학생 생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겨울! 입니다. 한국에서는 보일러로 난방을 해서 방 바닥이 매우 따뜻해 밖은 춥지만 실내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난방이 없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밖에 있는 것보다 집 안이 더 추워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전기장판 없이는 절대 잠을 잘 수 없었고 방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실내화를 신고도 양말을 몇 겹 겹쳐 신고 옷도 두꺼운 옷으로 입고 생활 해야 했던 것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았지만 일본에서 만난 각국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여 국적은 모두 다르지만 모두 일본에 관심이 있고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 와서 자국의 언어가 아닌 일본어로 대화하고 친해진다는 점이 신기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유학생을 위한 이벤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친해 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개월 동안 오사카에서 생활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런 일들을 겪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점은 아마 일본 생활을 통틀어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소에 여행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도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혹은 국내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쉬는 날이 생기면 어디든 나가서 일본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토록 좋아하는 여행도 일본에서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사를 통해서 해외도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며 일본 여행사까지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학기가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학기 일본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잘 살려서 졸업 한 후에는 일본어를 살릴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